

문 대통령, 신축년 새해 공식 신년사

# “터널 끝 보여… 일상 회복하고 선도국가로 도약”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불확실성들이 많이 겹쳐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1층 중앙로비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포용·도약’이라는 제목의 신축년(辛丑年) 공식 신년사에서 “이제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와의 가시진 전장이 끝나지 않았다. 생명과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유례없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일상의 상실로 겪는 아픔도 계속되고 있다. 고난의 시기를 건너고 계신 국민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우리는 함께 코로나를 이겨낼 것”이라며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줬다”고 했다.

### “방역 모범국 소중한 성과… 위기 강한 대한민국 저력”

문 대통령은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면서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됐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자각이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돼,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다”며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꺾어낼 수 없는 소중한 성과”라고 했다.

###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포용·도약 주제로”

### “방역 모범국 소중한 성과 위기 강한 대한민국 저력”

### “3차 유행 조기 종식 최선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상반기 경제 수준 회복”

###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주거 어려움 매우 송구”

### “한국판 뉴딜, 국민 체감 중요 중점은 ‘지역 균형’에 둘 것”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상생 정신은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도 가장 큰 힘이 됐다”며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앞장섰고, 기업들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해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 “3차 유행 조기 종식 최선… 상반기 경제 수준 회복”

문 대통령은 “마스크에서 해방되는 평범한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점차 나아지고 있는 방역의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기는 것이 우선”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을 이룰 것이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며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 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음들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다. 30조 5000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다”며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 “고용·사회안전망 한층 강화… 주거 어려움 매우 송구”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 청년층과 저소득 구직자들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직까지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모든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며 “앞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 상병수당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 민생회복과 안전망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시는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려를 줄하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며 “특히 공공주택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국판 뉴딜, 국민 체감 중요… 지역균형에 중점”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민간이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뉴딜 펀드 조성과 제도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 “청년 성공시대 · 민주정권 재창출 · 지방선거 승리” 다짐

민주 전북도당 청년위, 비대면 신년인사회 화상회의 “정책 개발 등 통해 대선 · 지방선거 준비해 나갈 것”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위원장 이정하)는 1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 신년인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가졌다. 이날 비대면 화상회의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과 장경태 전국청년위원장, 서난이 청년지방의원협의회장 등 49명의 부위원장단이 함께 했다.

신년인사회는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일상을 되찾고 전부의 희망을 만들기 위해 청년 성공시대와 민주정권 재창출, 지방선거 승리를 이기기 위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정하 위원장은 “신년인사회를 코로나19의 여파로 비대면 화상회의를 진행하게 돼 아쉽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



(사진=도당 청년위원회 화상회의 캡처)

에 앞둔 현재 단합된 청년위원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어 청년위원회가 나갈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

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성공시대를 위한 청년 정책 개발과 단련된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신설 등을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준비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유호상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민주 김수흥 의원, 농협중앙회로부터 ‘감사패’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민 복지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수흥 의원은 농협에 대한 법인세 감면 특례가 종료되는 지난해 일몰기한의 연장 필요성을 강력히 관철시켜 최종적으로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

또한, 익산농협(조합장 김병국)과 같은 매출 1,000억원 이상, 자산 5,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조합법인을 특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정부안을 막아내기도 했다. 지역조합의 법인세 감면이 사라질 경우 세부담이 커진 만큼 조합원 지원사업이 위축돼 사실상 조합원 혜택 축소 및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몰기한을 연장시키고, 대규모조합도 현행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조합의 지도 및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했다. /유호상 기자



# 민간조사 전문기업

# 탐정 法人 해결사

가족 실종자찾기
민.형사 증거조사
개인.가족.기업 고민상담

## 010-5636-7755

907호